

학습권을 위한 변명 -학습권 개념 바로잡기-

글 정민승(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흔히 우리는 학습권을 수업을 받을 권리 정도로 여긴다.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의무교육인 학교교육에서 정해진 수업을 받는 것이 과연 학생에게 주어진 권리인 것일까? 적어도 자기 결정권이 포함되어야 학습권, 즉 권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학습권의 개념을 되짚어보고 그 개념이 제대로 성립하기 위한 필요조건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 수업을 받을 권리와 수업을 선택할 권리

학교교육에 있어서 교원의 가르치는 권리를 수업권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교원의 지위에서 생기는 학생에 대한 일차적인 교육상의 직무권한이지만 어디까지나 학생의 학습권 실현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학생의 학습권은 교원의 수업권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다. 따라서 학생의 학습권이 왜곡되지 않고 올바르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교원의 수업권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학생의 학습권은 개개 교원들의 정상을 벗어난 행동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2007년 9월 20일 대법원 판결문의 일부다. 아마도 ‘학생의 학습권’이라는 말이 판결에 사용된 첫 번째 사례일 것이다. 이에 따르면, 학생이라는 ‘학습주체’가 학습하기로 한 결정을 보장하는 것이 학습권의 실현이고, 이 학습권은 교사의 수업권보다 우월하다는 말이다. 이미 10여 년 전에 학습권에 대한 일종의 ‘선언’이 있었던 셈이다.

학습권이란 어떤 권리일까? 위 판결문에 따르면, 학습권은 ‘수업을 받을 권리’ 정도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권리일까?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수업을 받는 것을 권리로 생각할 학생은 백 명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일 것이다. 학생은 수업을 선택할 권리가 없다. 학생은 정해진 수업을 받아야만 하며, 그래서 학교교육은 의무교육이다. 그렇다면 수업을 받는 것은 의무에 가깝고, 오히려 수업을 ‘안 받겠다’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이 학생의 권리 아닐까? 정해진 교과를 수업받는 것이 ‘권리’라고 하는 말은, 빈곤층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다.

오히려 ‘수업을 받을 권리’에 초점을 맞춘 권리로는 ‘교육권’이 있다. 이미 1960년에 유네스코는 교육에서의 차별금지를 위해 ‘교육권’을 선포했다. 학교와 같은 형식적 교육기관에 들어가서 학습할 수 있는 권리가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어야 한다

는 것이다. 그럴 때에만, 사회구성원은 공평하게 자신을 돌보고 미래를 설계할 자원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즉, 교육권은 ‘교육기관’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모든 계급에 참정권을 부여한 것과 같은 기능을 한다. 노동자나 빈민, 여성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계급이나 지역적 격차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교육을 받아 문해 상태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사회의 진보다.

□ 학습권이란 무엇인가

그렇다면 ‘교육권’과 구분되는 ‘학습권’은 무엇일까? 그것은 적어도 ‘배움에서의 자기결정권’을 포함하는 권리여야 할 것이다. 배움의 주체인 학습자가 배움의 종류를 선택하고, 배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사회가 보장해주는 그런 장치일 것이다. 교육권이 ‘사회적 차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학습권은 ‘개인적 성장’에 주의를 기울인다. 개개인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가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학습권은 투표할 권리인 참정권이 아니라, 개인이 행복하게 살 권리인 행복추구권에 가깝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선포한 행복추구권처럼, 학습권은 개개인이 자신이 원하는 학습을 추구할 권리, 혹은 원하지 않는 학습을 거부할 권리를 말한다. 행복추구권에 대한 정의에 이어지는 사전적 설명을 보자.

(행복추구권은) 천부인권(天賦人權), 즉 전(前)국가적 자연권을 선언한 국가의 기본질서이며 법해석의 최고 기준인 근본규범이다. 그러므로 이 규정은 헌법개정의 방법으로써 전면 개폐할 수 없으며, 단순한 프로그램적 규정이 아니라 국가가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다. 따라서 모든 국가기관은 물론, 어떠한 개인도 타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못한다.

전 국가적 자연권의 차원에서 학습권을 본다면, 학습은 행복만큼이나 인간이 추구할 마땅한 지향점이어야 한다. 학습이 행복만큼 소중해야 한다. 배우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 인식되어야 주장이 가능한 권리다. 여기에서 우리는 난관에 봉착한다. 학습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수동적 지식습득’ 정도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심지어 불행의 원천으로 생각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현실에서 학습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다. 그래서, 위의 대법원의 판결문에서조차, ‘학생의 학습권’은 학생 고유의 학습에 대한 결정권이 아니라, ‘부모의 교육권’, 즉 부모가 아이들을 교육시킬 권리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개념의 착종이다.

□ 학습권 해석의 열쇠는 학습의 본질에 있다

학습권 개념이 제대로 성립하려면, 그리고 학습권 논의가 발전하고 실천이 이어지려면, ‘학습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동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사실, 사회적 차원에서 학습이 중요하다는 점에는 누구나 동의한다. 사회가 유지되고 국가가 발전하는데 학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생물학적 존재로 태어난 아기는 학습을 통해 사회적 존재로 거듭난다. 문화가 전수되고 협력하며 노동의 능력을 갖추는 것은 학습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는 인류학자 마거릿 미드가 부족사회의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한 바다.



문제는 개개인에게도 학습이 좋은 것인가라는 점이다.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과 개인적으로 좋은 것은 다르다. 개인이 성장하는 데 학습은 불가결의 조건이지만, 그것이 즐거운 일인지는 의문이다. 여기서 한번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자. 우리는 어떻게 말하고 읽고 성장하여 오늘에 이르렀는가? ‘엄마’라는 말을 익히는 데 수천 번의 실수와 연습이 필요했고, 걷고 뛰는 데 수백 번의 넘어짐이 필요했다. 공자가 논어의 첫 문장으로 말했던 ‘학’ 이시 ‘습’, 즉 새로운 것을 배우고, 배운 것을 때로 익히

는 ‘학습’은 실패와 고통을 전제로 ‘불역열호’라는 기쁨으로 나아가는 인간의 조건인 것이다.

한마디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이 수반된 깨달음의 희열. 이것이 학습의 본질이다. 여기에 학습권 해석의 열쇠가 있다. 학습은 인간을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일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즐겁거나 쉽지만 한 과정은 아니다. 하지만 쉽고 즐거운 것이 곧 좋은 것은 아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 익히는 과정은 고단하고 피곤하다. 하지만, 배움의 즐거움은 한번 맛보면, 인간에게 본질적인 기쁨을 가져다주는 행복의 기반이기도 하다.

“학습권은 배움에서의 자기결정권을 포함하는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하여 국가에 적극적인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행복추구권에 가깝다.”

인생이란 인생에 대해 조금 더 알아가는 과정 이상이 아니다. 다시 말해, 인생이 학습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삶을 논하는 학습권은 제도적 진입을 논하는 교육권보다 훨씬 더 본질적이며, 포괄적이다. 그래서 학습권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인 시민권을 넘어서서, 국민 개개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하여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인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특징을 가지게 된다.

학습권의 관점에서 보면 교육이란, 정해진 지식을 공평하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이 가진 ‘고통과 희열의 양가성’이 학습자 안에 잘 통합되어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 고행을 통한 의지를 북돋는 작업이 바로 교육이다. 이런 교육이 실현될 때, ‘학습권=교육권’이 성립된다. 그렇다. 바로 이 순간에 학습은 행복이 된다.

/출처: 서울특별시교육청 웹진 <지금 서울교육> 2019년 5월호

[학부모톡톡] 여자는 발레, 남자는 태권도 ... 꼭 그래야 하나요?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과 교육-

□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 인식

- 김지영: 요즘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책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30~40대인 여성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가 현장감 있게 잘 그려져 있어서 저도 공감이 많이 됐어요. 여러분은 책을 읽고 어떠셨나요?
- 윤순애: 책을 읽으면서 그동안 제가 양성평등에 대해 무지했다고 느꼈어요. 유교사상이 깊게 뿌리내린 사회에서 불평등을 불평등이라고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온 것 같아요. 양성평등에 대한 무지를 일깨우는 계기가 된 책이었어요.
- 강민화: 저는 책 내용이 마치 제 삶인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인생의 80%가 책 속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더 많이 공감하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 최은희: 이 책을 읽고 나면 우리 사회의 여성들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게 된다고 하잖아요. 불쌍하다는 감정보다는 책 속의 이야기가 내 가족의 이야기라는 점을 한번 더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점에서 남자들과 함께 읽으면 더 좋은 책이라고 생각해요.
- 강재운: 저도 남자가 읽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특히 제 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어요. 사실 아들을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아이에게 양성평등과 남녀차별을 말로 설명해주는 데 한계가 있거든요. 아이가 책을 읽고 나면 평등과 차별에 대해 제가 일일이 설명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느끼는 게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 김지영: 책 이야기를 하면서 양성평등에 관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오늘 함께하신 분들도 그동안 부모님에게 가정교육을 받았던 유년기, 학교에 다니던 학창시절을 거쳐 직장을 다니다 결혼을 하고 이제는 전업주부나 워킹맘으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경험을 떠올려봤을 때 불평등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낀 건 언제였나요?
- 최은희: 저는 결혼을 하고 나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됐는데요. 20여 년 전의 일이긴 하지만, 당시 제가 다니던 회사는 여직원은 결혼하면 일을 그만둬야 하는 게 일종의 관례였던 곳이에요. 솔직히 당시에는 일을 그만두면 조금은 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경력이 단절된 채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은 그게 마냥 좋은 건 아니라고 느껴요.

- 윤순애: 그때는 불평등하다고 인식하지 못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불평등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어요. 회사에 같은 시기에 입사해도 여직원이 급여를 더 적게 받거나 똑같이 일해도 남자가 먼저 승진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개인적으로 여직원은 힘든 일이 주어지면 회피하려는 경향이 더 많다는 것도 인정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여직원도 많거든요. 이 사실을 아예 배제해버리는 게 문제예요. 그렇게 행동하는 여직원, 그런 환경 둘 다 문제라고 봐요.

- 강민화: 양성평등 의식이 높아지면서 여군 인원이 많이 늘었잖아요. 직업군인인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힘든 훈련이 있을 때는 여자라서 못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반면에 화장실 문제와 같이 주변환경에 의해서 겪는 어려움을 남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양성평등을 추구하려면 성별에 따른 불편함이 없도록 환경을 개선해야 해요.

- 강재운: 제가 다닌 회사는 학력, 성별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 곳이었어요. 일한 만큼 똑같이 받고, 결혼이나 출산을 했다고 퇴직을 권유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책을 읽으면서 ‘직접 겪어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사례도 있을 수 있겠구나, 내 경험과는 다를 수도 있겠다’ 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 치우침 없는 양성평등 교육

- 김지영: 아이들을 키우면서 양성평등을 얼마나 염두에 두고 있는지 이야기해볼게요. 우리 아이들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모두가 평등한 인간으로 대우받았으면 하는 게 모두의 바람일 거예요. 그런데도 가정에서 아이를 가르치면서 은연중에 실수하는 것도 많을 것 같은데요.

- 강민화: 저는 초등 3학년 남자, 5살 여자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무의식중에 옷의 스타일이나 색상을 성별에 맞추려고 해요. 딸아이는 발레보다는 태권도를 배우고 싶어 하고 옷도 남자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가 그려진 옷을 입으려고 해요. 솔직히 엄마 입장에서는 예쁜 ‘여자 옷’ 을 입히고 싶은데 딸아이는 싫어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가진 고정관념을 아이에게 강요하는 건 아닌가 싶더라고요.

- 윤순애: 요즘에는 여자아이한테 로봇을 사 주고, 남자아이한테 인형을 사 주는 엄마들도 있다고 해요. 성별에 따른 관습과 고정관념을 심어주지 않으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아이에게 주입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강요하지 않아도 아이 스스로 나름의 기준을 만들어 나갈 거라고 생각해요.

- 강민화: 큰아이는 눈물이 많아서 곧잘 울어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남자가 왜 울어. 울지 마’ 라고 해요. 남자라도 감정이 있고, 사람마다 성향이 다른데 울지 말라고만 다그쳤던 게 미안해지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가정에서 흔히 하는 실수인 거죠.

- 윤순애: 책 내용 중에 식당에서 수저를 챙기는 것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와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먼저 수저를 올려놓는 것도 스스로 행하는 성차별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저도 회사에 다닐 때 그렇게 했어요. 근데 성별을 떠나서 나이가 많은 윗사람에 대한 예의로 한 거였거든요. 아이들도 식당에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 수저를 챙겨드리고 칭찬을 받아요. 책을 보면서 이걸 계속하도록 할지, 하지 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이들에게는 이런 행동이 성 역할이 아니라 예의범절에 따른 행동이라고 그 기준을 정확하게 가르쳐야겠다고 느꼈어요.
- 강재운: 관습적인 성 역할이 무의식 속에 숨어 있는 건 자라면서 그런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이에요. 부모님 세대는 아빠가 집안일을 잘 도와주거나 요리를 자주 하는 세대는 아니었잖아요. 우리도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면서 자란 거죠. 지금 아이들도 얼마나 여자가 수저를 챙기는 모습을 많이 봐왔으니 그런 일은 여자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죠.
- 최은희: 일상생활에서 평등에 대해 가르치면 결국 나중에는 하나의 문화로 형성돼서 양성평등에 대해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 김지영: 관습적인 성 역할에 따른 고정관념을 없애기 위해 가정에서부터 많이 노력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은 우리 사회에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자리 잡은 것은 아니잖아요. 남자답지 못하면, 여성스럽지 않으면 눈총을 받기도 하고요. 이런 시선들 때문에 가정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고민이 되지는 않나요?
- 강민화: 큰아이가 자주 우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많아요. 주변에서 ‘남자가 돼서 왜 저렇게 많이 울어’ 라는 식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아이를 혼내고 다그치게 돼요. 그럴 때마다 아이의 성향대로 감정표현을 하는 건데 주위 시선 때문에 억지로 못하게 하는 건 아닐까, 그대로 놔두면 혹시 다른 아이들한테 따돌림을 당하는 건 아닐까 걱정되고 갈등이 생겨요.
- 최은희: 친구가 6살 여자아이를 키우는데, 흔히 말하는 유별난 아이예요. 만약에 남자아이였다면 장난꾸러기 정도로 여기겠지만, 여자아이니까 유별나다고 하는 거죠.
- 윤순애: 그래도 예전보다 사회 환경이나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가사와 육아를 분담하는 아빠도 많고, 육아휴직을 여직원뿐만 아니라 남직원에게도 주는 회사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양성평등을 바라보는 인식이 예전과 비교하면 많이 그리고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 김지영: 앞으로 우리 사회를 바꾸는 건 결국 아이들인데, 그런 아이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는 양성평등에 대한 교육이 보다 더 잘 이뤄져야 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학교와 우리 교육에 바라는 점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수다를 마치도록 할게요.

● 강제운: 한번은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여자아이가 놀려서 하지 말라며 밀쳤다가, 여자아이를 때렸다고 선생님께 혼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자는 남자보다 힘이 약하니까 보호해야 하고 네가 더 많이 참아야 한다고 달래기는 했지만, 여자니까 참아야 한다, 남자니까 양보해야 한다는 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상황에 맞게 잘 중재했으면 좋겠어요.

● 강민화: 저도 큰아이가 ‘레이디 퍼스트’ 라고 해서 종례 후에 여자아이들이 먼저 나가고 나면 남자아이들은 뒤늦게 나가게 한다면서 빨리 나가서 놀고 싶다고 불평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사실 밥을 먹거나 하교하는데 성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물론 레이디 퍼스트를 가르쳐주는 건 좋지만, 형평성에 맞게 한 번씩 순서를 바꾸는 식으로 해서 상황과 성별에 관계없는 무조건적인 배려로 인한 역차별은 느끼지 않도록 했으면 해요.

● 최은희: 여자는 남자보다 약하니까 배려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레이디 퍼스트’ 를 하는 건데, 남자도 여자보다 약할 수 있는 거잖아요. 조건 없는 배려에만 익숙해지면 결국 여자아이들은 자신을 스스로 나약한 존재라고 인식하게 될 거예요.

● 윤순애: 물론 말씀하셨던 사례들은 일부의 사례일 뿐이고, 그런 몇몇 선생님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생님은 성별로 순서를 정하게 되면 남자, 여자 한 명씩 섞거나 번호대로 하면 한번은 앞번호부터, 그 다음은 뒷번호부터 순서를 바꿔가면서 공평하게 기회를 준다고 해요. 성별을 차별하지 않는 균형 있는 교육, 아이들이 공식처럼 외우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예의범절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출처: 서울특별시교육청 웹진 <지금 서울교육> 2017년 10월호